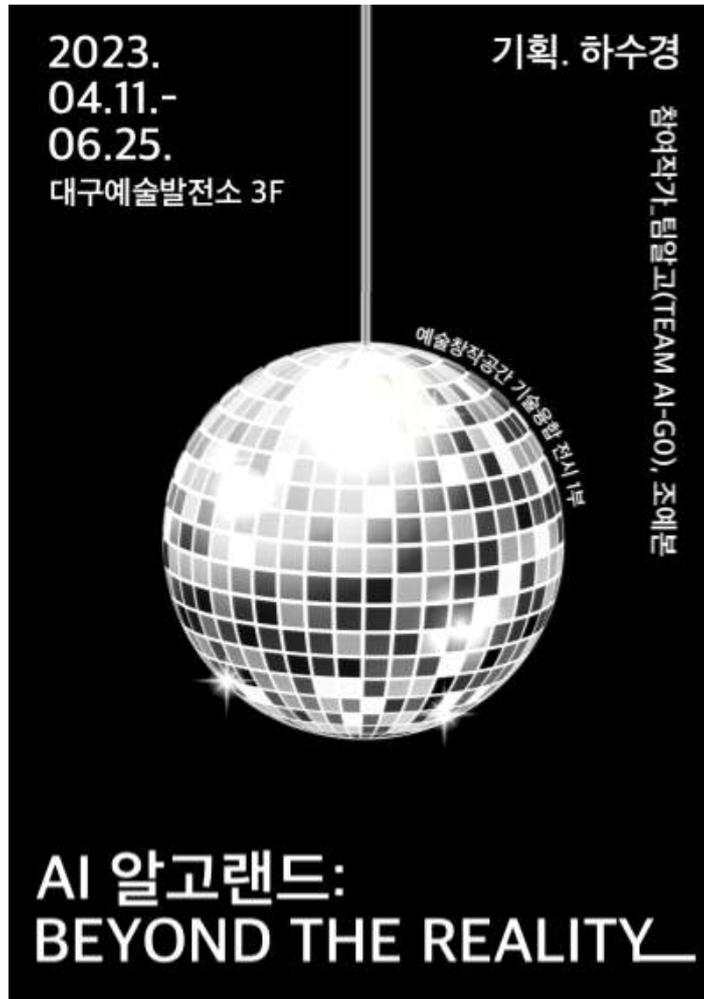


시미디어아트팀 팀알고, 대구예술발전소서 '춤추는 AI' 전시

- 지스트 융합기술원 팀알고, 서울에 이어 대구 '알고랜드' 기획전에 참여
- 오는 6월까지 전시... 언어를 몸짓으로 바꾸고 춤으로 대화하는 AI 만날 수 있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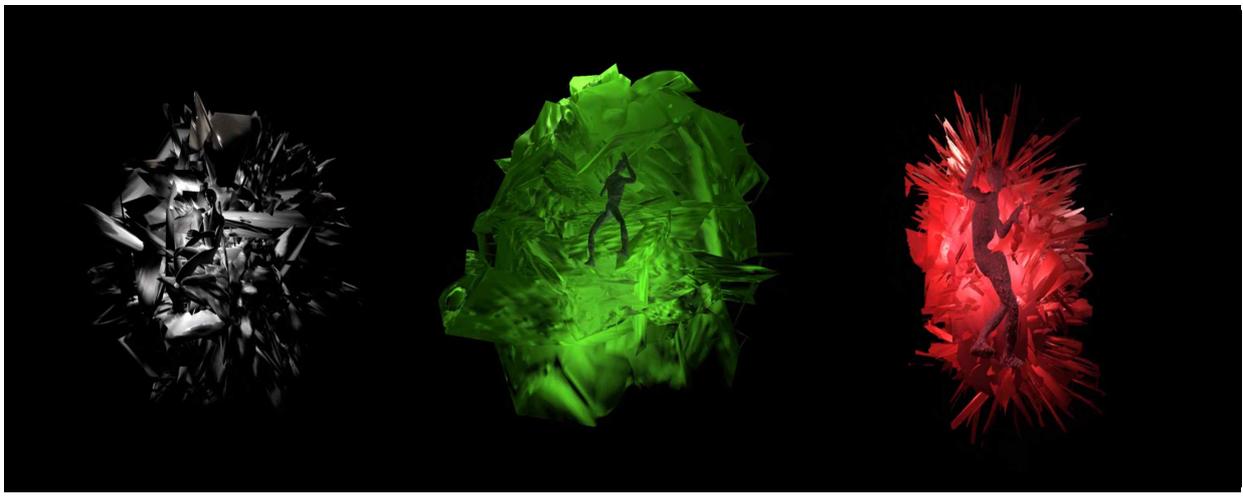
▲ '알고랜드' 전시 포스터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융합기술원 대학원생이 이끄는 '팀알고(Team AI-GO)'가 **춤동작을 생성하는 AI기술이 적용된 미디어아트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전시** 중이다.

팀알고는 융합기술원 대학원생이 시작한 시미디어아트 전시팀으로, 사운드아트 작가 조예본 씨와 뜻을 모아 **예술 영역에서 AI의 의미와 그 공생 방안을 연구자와 예술가의 시선으로 탐구**하고 있다.

'알고랜드:Beyond The Reality'는 대구예술발전소의 첫 기술융합 전시로, 팀알고는 3개 파트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파트에 참여한다.

첫 번째 파트에서는 <알고리듬(AI-GO Rhythm)>이 4월부터 전시 중이다. AI '알고'가 언어로 표현되던 **대중들의 욕망을 몸짓으로 바꾸어 춤추는 모습**을 관람할 수 있다.



▲ AI '알고'가 작품 <알고리즘>에서 관객들의 욕망을 언어에서 춤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. 세 번째 파트에서는 <셸위댄스(Shall we dance?)>가 5월 23일(화)부터 전시될 예정이다. 관람객은 **AI '알고'와 춤으로 대화하는 체험**을 통해 AI와의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.

팀알고는 작년 6월 **최유진 박사과정생이 리더를 맡고 문재영, 박태화 박사과정생이 참여**하면서 결성됐다. 학생들의 연구영역은 달랐지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융합기술원 특유의 분위기 덕분에 협업이 가능했다. 연구실 밖에서의 융합을 강조하는 **융합기술학제학부 홍진혁, 김경중 교수의 적극적인 지지**도 힘이 됐다.

뜻을 모은 지 반 년 만에 팀알고는 **서울문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<지나친 몸짓들: 메아리를 깨워 울려 퍼지게 하느냐> 기획전에 <알고리즘>을 발표**했다. AI와 춤을 결합한 시도에 관람객의 이목이 쏠리면서 예술 영역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다.

홍진혁 교수는 "학생들이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경험하며 더 나은 연구자로 성장할 것"이라며, "연구실을 벗어나 서울, 대구 등 전국에서 전시를 경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를 갖길 바란다"고 밝혔다.

한편, 이번 전시는 **AI를 이용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확장하는 방식**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AI가 창조한 예술이 과연 예술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. **6월 25일까지 무료로 관람**할 수 있다.